



《번역문》

“간호원의 디렘마”

The Nurse's Dilemma

<제 5 회>

D. 인간의 간호욕구에 대한 충족 (Meeting Nursing Needs of people)

윤리강령에 간호원은 우선 간호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대해 책임을 진다고 나와 있다. 이 진술은 2가지 중요한 문제가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

첫째, 간호원은 종종 환자의 요구, 가족과 고용주 혹은 타인의 흥미와 욕망으로 인한 충돌을 겪게된다.

둘째, ‘간호를 요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의 노력이나 부탁으로 간호원과 연락이 되는 사람 혹은 간호원이 간호가 필요하다고 느낀 사람이 포함되는가? 과연 간호원은 간호기관 방면에 대한 지식, 위치 혹은 기타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 간호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가?

몇몇 간호원들은 위의 내용을 치료와 투약에 대한 환자의 요구는 항상 존중 되어야 하고 건강요원이 환자에게 가장 좋은것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할 지도 모른다.

27. 피임방법의 필요성

가족계획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원이 있었다. 그녀는 피임기술에 필요한 지식이나 임신가능의 최적상태에 대해 필요한 지식을 여성에게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모자(母子)의 건강을 최대로 보장하기 위해선 적절한 적은수의 어린아이에 대한 계획은 세워야 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근무중에도 수차례 경구피임약을 복용시키라는 권유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 여성들은 계속 상담소와 연락을 취하지 않고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도 받지 않았다. 간호원은 환자의 건강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치료방법이 표면상 증가하고 있는 것에 의심이 갔다. 그녀는 이런 산아제한법을 신뢰하지 않았고 다시는 이런약을 복용시키지 않았다.

a) 간호원은 여성의 어떤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는가?

b) 그런 여성들에게보다 효과적인 교수를 하기 위해 간호원은 어떤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가?

c) 간호원의 신념이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녀는 중독의 상황에 처해있어야 하는가? 그녀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8. 의심스러운 의료행위

X양은 신우신염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그녀는 살리실산염, 설파제, 페니실린 등등의 약품에 알레르기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다.

그녀가 호소했던 증세중의 하나는 등에 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었다. 이 고통을 멎게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Pandol과 Ponstan을 그녀에게도 지정해줬다. 그녀는 많은 약품에 대한 알레르기 현상이 있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담당의사는 그렇게 많은 약품에 대한 환자의 알레르기 현상을 믿지 않았고 환자의 그런 반응을 심리적인 것이라고 믿었다. 그 의사는 병동 담당간호원에게 이것을 얘기 하고는, 간호원이 환자에게 지정된 Panadd를 복용시켰을때, '아스피린'을 경구 복용시키고 자기에게 협력해줄 것을 부탁했다. 간호원은 이것을 거절했고 의사에게 경고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간호원이 병동에 없었을때 의사는 아스피린 2정을 부셔서 켈라틴 캡슐에다 넣고는 간호학생을 불러 X양에게 이 캡슐을 복용시키도록 했다. 간호학생은 환자에게 이 캡슐은 전에 복용하지 않았던 새약이라는 설명을 해야했다. 그 간호학생은 캡슐에 넣은 약품명을 의사에게 물었다. 그는 분명스럽게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는 지시대로 하라고 명령했다. 간호학생은 환자에게 캡슐을 복용시키게 되었다. 환자는 의심스런 눈으로 캡슐을 쳐다보고는, 아침에 짜주셨던 고문의사가 새약을 먹어서는 안된다는 말썹을 하셨다고 했다. 그녀는 두렵다는 것을 간호학생에게 알렸다. 그녀는 1정을 복용하고나서 자기는 알레르기 체질이기에 때문에 새약을 복용하기가 조심스럽고, 우선 1정을 복용하고 그 결과를 보고 싶다고 간호학생에게 설명했다. 간호학생은 환자의 이론에 수긍이 갔고 의사에게 환자가 2정을 다 복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의사를 찾아 나갔다. 그녀는 의사를 찾지못해 담당간호원을 찾아가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모두 얘기했다.

캡슐 하나를 복용한 지 40분이 되어서 환자는 수행간호원을 불러 등이 매우 가렵고 쑤신다고

했다. 병동담당 간호원이 불러졌고 검사하는 도중 목등뼈 아래와 가렵고 쑤셨던 친골 부위 아래까지 조그맣고 빨간 발진이 돋아난 것을 발견했다. 의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곧 필요한 항히스타민제 요법은 모두 실시되었다.

그 상황의 추후조사에서, 환자는 고문의사에게, 자기의 알레르기 체질을 잘알면서도 자기에게 지나치게 불편함을 주거나 위험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도록 하라는 충분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사과가 이뤄졌고 환자는 이를 받아들였다. 더이상 이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았다. 고문의사는 이 사건 전부를 세심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의사가 환자의 알레르기 반응을 '심리적'인 것이라고 가정한 것은 큰 실수였다.

그의 켈라틴 캡슐 제조행위는 이나라에선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행위법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그가 간호학생에게 불충분하게 알려준 것은 지나친 의무때만이였다.

간호학생도 역시, 환자에 대한 정보를 무시하고 내려진 의사의 지시를 무턱대고 따르는 "몽매함"에 잘못이 있었다.

담당간호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해트인 '실협'에 협력해줄 것을 부탁한 사실을 곧 고문의사에게 알리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다.

간호학생은 간호학교 당류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고, 그녀 기록부에 이 사실이 기록되었다. 담당간호원도 간호행정가로부터 비슷한 처분을 받았고 의사는 경고장을 받았다. 환자는 아무것도 모른채 퇴원했고, 1정 이상의 약을 복용할 때 알레르기 현상이 나타난다고 믿었다.

a) 의사가 의심스런 지시에 따르도록 요구할 때 간호학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b) 추후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가?

c) 환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퇴원했어야 했는가?

d) 환자간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간호학교와 간호행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e) 양질의 간호와 협동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담당반은 병동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29. 어린아이의 학대를 무시함

지역사회의 한 보건간호원이 지역사회내 한 가정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 가족의 한사람을 돌보면서 그녀는 무심코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사례를 발견하였다. 그녀는 이처럼 위험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곧 지역 보건국의 의사에게 그녀가 관찰한 모든것과 처리해야할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요약하여 통보하였다. 의사는 간단한 절차를 따랐고 이 사건은 지방 어린이 보호국에 위임됐다.

어린아이는 7학년이었다. 어린이 보호국의 사전담당자는 이 어린이 학교로 찾아가 면담하는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면담을 하면서 이 어린이가 가정에서 혹사당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졌다. 그러나 이 어린이는 사전담당자가 가정환경에 간섭함으로써 인한 그 결과가 매우 두려웠다. 사전담당자는 더이상 이문제를 추궁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어린이가 요구하는 대로 더이상 이 사건을 진행시키지 않았다.

간호원은 아직 그가족의 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집에 있을때 마다 그 어린이가 계속 학대받고 있는것을 본다.

- a) 그 이상의 지도와 참고를 위해 간호원은 어떤 자원을 이용할 수 있었는가?
- b)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그녀 자신이 어린이 보호국에 가야 하는가?
- c) 간호원은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부모와의 조정을 시도해야 하는가?
- d) 가정환경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할 또 다른 사람 혹은 기관이 있는가?
- e) 그드래 어린아이의 소망을 어른의 소망처럼 존중해야 하는가?

30. 치료거부의 요청

한 나이이긋한 부인이 처음 알아타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끝낸지 1달만에 다시 입원했다. 그녀의 상태는 매우 악화된 상태였고 간호면담을 하는 동안 그녀는 당장 죽고싶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 그녀는 익숙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에는 전혀 흥미가 없다고 표현했다. 그녀는 2주일 입원하면서

더 약해진것 같지는 않았다. 그녀 가족은 그녀에게 수혈을 받고 화학요법을 시작하도록 설득시켰다. 그녀는 동의하였다. 담당 의사는 적절한 검사, 수혈, 약을 지시해 줬다. 그는 또 간단한 정맥천자를 할려고 정맥 찾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정맥절단 수술을 외과의사에게 의뢰했다. 그리고 담당 의사는 수일간 시내를 떠나가 있다 가 한번도 그녀를 본적이 없는 다른 의사에게 그녀를 맡겼다. 화학요법은 다음날 아침에 시작하기로 되었었고, 그는 처방대로 해나갔다.

외과의사가 도착해서 준비하는 동안 나는 도와주기 위해 거기에 있었다. W. 부인은 호느껴 울기 시작하더니 “제발 이리저 팔아 달라”고 했다. 의사는 그녀의 간청을 들은척도 안하고 하던 일도 멈추지 않았다. 그밤에는 2명의 간호학생도 있었으며, 의사는 그들에게 절단과정의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진행을 멈추게 하고 싶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 그대신 사람의 눈을 피하고 그방의 어느 누구와도 얘기를 않는 W부인을 위로하려고 했다. 절단수술이 끝난뒤 나는 W부인을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해주고 얘기할 시간을 주면서 잠시동안 머물렀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나와 얘기를 하지 않았다. 내가 방을 나와 처음 만난 사람은 그녀를 잠시 맡았던 의사였다. 나는 그에게 분노를 터뜨렸고 그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냐?’고 대꾸했다.

후에 나는 간호학생에게, 그녀의 소망대로 절단수술을 중지시키지 못한 자신에 대해 분노감과 무기력, 좌절감을 느낀다고 표현했다.

나는 다음번에는 더욱 용기를 갖고 환자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이고 적어도 그렇지되길 바란다.

- a) 환자에게 마음대로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가?
- b) 간호원은 환자가 이해 가능한 결정을 내리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 c) 이같은 상황에서 간호원은 환자를 대신하여 간섭할 책임이 있는가?
- d) 간호원은 이같은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여 학생 및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가?

《본회사업무제공》

<계 속>